

농업인 영농 애로해소 위한 소통 나서

김관영 도지사, 과수재배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 찾아… 농업인 격려·과학영농 서비스 시설 운영 상황 등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해 벽두에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교육현장을 찾아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5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지역 과수재배 농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으며 함께 과학영농시설 현장도 살펴봤다. 김 지사는 이날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영농인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 폭우, 개화기 저온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 및 방제 약제

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농업인들과 함께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수정별 인공증식장’과 ‘과수 이상기상 대응기술 실증포 시설을 각각 살펴며 과학영농 서비스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이 주관하며, 사과재배 면적이 넓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의 사과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에 대한 특별교육이 진행됐다. 기술원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이 연 1회 이상 과수화상병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과수화상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교육을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수정별 인공증식장’과 ‘과수 이상기상 대응기술 실증포 시설을 각각 살펴며 과학영농 서비스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시·군, 재난안전분야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위해 ‘머리 맞대’

2025년 재난안전분야 국가예산 확보 정책회의 개최… 국가예산 발굴 현황 점검·추가 발굴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4개 시군 안전총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재난안전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와 시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에 맞춘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국가예산 발굴 현황 △국가예산사업 추가발굴 전략 △중

앙부처와의 협력 방안 △재해예방사업 신속집행 및 위기 전 조기 추진 △시군 건의사항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재난안전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분야에서 시군과 협력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 제안을 추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이 강조됐다. 도는 2025년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123개 지구에 약 1,378억 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역 특성에 맞춘 신

속한 사업 착수와 행정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대설·한파 등 재난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더욱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과 안전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 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2025년 국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

굴, 도민안전보험 보상한도 확대,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홍보 강화 등 주요 민생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군에 협조 요청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정책회의는 2025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출발점”이라며, “무엇보다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설날 선물, 전북 어르신 생산품으로 준비하세요”

17일 도청 1층 로비서 어르신 생산품 50여 종 전시·판매

판매 수익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참여자 수익 증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는 2025년 설날을 맞아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 생산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의 정성이 담긴 누룽지, 김부각, 과일청, 청국장, 두부 등 총 50여

종의 다양한 생산품이 전시 및 판매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공동체(시정형) 사업단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판매 수익금을 다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한다. 이를 통해 단순 공익활동 일자리와 달리, 참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 확대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에 17개의 시니

어클럽이 활동 중이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소연 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장은 “도내 어르신들이 정성껏 생산한 물품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 생산품에 대한 취약계층 우선구매 실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이순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참여자 수익보장을 넘어, 시니어클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

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일자리 개발과 주민 수요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저소득 어르신 및 젊은 노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우울감 해소,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킴이’

자동 작동한 간이스프링클러 화목보일러 화재 막고 가족 생명 구해

익산 주택 화재, 간이스프링클러 신속 작동으로 대형 피해 막아
한국화재보험협회·익산소방서의 지원이 만든 ‘기적의 순간’

소방서에서 산림 인접마을의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설치해 준 간이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화목보일러실에서 난 불을 진압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익산시 용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실 배관 부위가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고 주변에 얼어있는 물이 있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확인한 결과,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해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신속히 진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인 이씨(82)는 “어제 낮까지만 해도 보일러실에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 보니 불이 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주택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는 소방청에서 주관한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후원하였고, 지난해 1월 익산의용소방대원이 직접 방문해 설치했다. 이 씨는 “화목보일러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가족의 생명을 지켜줬다. 만약 불이 집 안으로 번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주고 꼼꼼하게 설치해준 소방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성수식품 특별 안전검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특별 안전검사를 15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명절기간 동안 소비가 급증하는 △가공식품(한과, 떡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등) △농·수산물(제수용 품목)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식품보존제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부적합 식품이 발견될 경우,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회수·폐기 조치를 시행하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위택스·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 가능…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3만여 건, 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67,500원, 그외 시군은 동지역 7,500원~45,000원, 읍면지역 4,500원~27,000원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주요 부과액은 △전주시 28억5,000만원 △익산시 8억원 △군산시 7억9,000

만원 △정읍시 5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방세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압류 및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